올 코리안 메이저리거간 빅매치 풍성

류-김 '한국전쟁'…새벽잠은 다 잤네

〈류현진〉 〈김광현〉

6월·8월 4경기 '인터리그' 예정
로테이션 순서 맞을땐 첫 맞대결
김광현-최지만 7월 11~13일 3G
추신수, 토론토와 7G·STL전 없어

류현진

김광현

추신수

최지만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3)이 LA 다저스를 떠나 토론토 블루제이스 유니폼을 입은 덕분에 새 시즌 메이저리그에선 한국인 투타 대결을 한층 더 많이 볼 수 있게 됐다. 김광현(32)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입단도 코리안 메이저리거간 맞대결을 늘려놓았다.

류현진의 새 둥지 토론토는 아메리칸리그(AL) 동부지구에 속해있다. 류현진이 지난해까지 7년간 줄곧 내셔널리그(NL)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까닭에 주로 인터리그 때나 추신수(38·텍사스 레인저스) 또는 최지만(29·탬파베이 레이스)을 상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같은 AL 소속이어서 맞대결 횟수 또한 부쩍 증가한다.

먼저 토론토와 탬파베이는 지구 라이벌이라 류현진과 최지만의 투타 대결 역시 가장 빈번하게 예정돼 있다. 류현진과 최지만은 그동안 맞대결을 펼친 적이 없다. 그러나 올해는 4월 18~20일(한국시간) 탬파베이의 안방 트로피카나필드에서 펼쳐질 첫 3연전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토론토와 탬파베이는 같은 지구 소속이어서 총 19경기를 치른다. 4월부터 9월까지 7월을 빼고는 매월 맞부딪힌다.

류현진은 추신수의 텍사스와도 5월 12~14일 원정 3연전, 6월 5~8일 홈 4연전에서 만난다. 과거 한 차례 맞대결에선 류현진이 추신수에 2타수 무안타 1볼넷 1삼진으로 판정승을 거둔 바 있다. 추신수가 NL 중부지구 신시내티 레즈에서 활약하던 2013년 7월 28일 다저스타디움에서였다.

KBO리그 시절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었던 류현진-김광현의 좌완특급 맞대결이 메이저리그로 무대를 옮겨 올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세인트루이스는 NL 중부지구에 속해있는데, 올 시즌 AL 동부지구 팀들과 인터리그를 펼친다. 두 팀은 6월 2~3일 부시스타디움(세인트루이스), 8월 19~20일 로저스센터(토론토)에서 총 4경기를 치른다. 류현진은 1선발, 김광현은 5선발로 예정돼 있는데 로테이션 순서가 맞아서 마운드에서 선의의 경쟁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흥미롭다.

김광현은 최지만과 대결할 수도 있다. 세인트루이스와 탬파베이가 7월 11~13일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인터리그로 3연전 맞대결을 한 차례 펼치기 때문이다. 추신수의 텍사스와는 경기 일정이 없다.

최지만은 지난해까지 좌투수가 상대 선발로 등장할 때면 결장 또는 대타 기용이 잦은 편이었는데, 2020시즌에는 어떨지 궁금하다. 최지만이 플래툰 시스템의 장벽을 허문다면 김광현은 물론 류현진과의 한국인 투타 맞대결 횟수 역시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다저스 류현진에 4년 제안…금액차 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원 소속구단 LA 다저스가 그에게 제시한 조건이 토론토보다 크게 밑돈 것으로 드러났다. LA타임스는 1일(한국시간)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 "다저스도 류현진에게 토론토와 같은 4년 계약을 제시했지만, 연봉 규모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며 "다저스가 제시한 연평균 액수가 토론토가 제시한 것보다 훨씬 적었다"고 보도했다. 결국 류현진은 4년 8000만 달러의 조건에 토론토와 계약했다. 이는 버논 웰스(7년 1억2600만 달러), 러셀 마틴(5년 8200만 달러)에 이어 구단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계약 총액이다.

희망을 확신으로…윌리엄스, 리빌딩 완성 꿈

〈KIA 신임 감독〉

KIA, 2020년 최고 시나리오는?

작년 박찬호·박준표 등 잠재력 폭발
올해 중고신인·필승불펜 만개 기대

KIA 맷 윌리엄스 감독

새롭게 태어나는 호랑이들은 다시 한 번 포효할 수 있을까.

KIA 타이거즈는 2020년을 새로운 시작의 첫 해로 정했다.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맷 윌리엄스 감독(55)을 선임했고, '올 뉴 타이거즈'라는 슬로건 아래 팀의 완전한 리빌딩을 꿈꾸고 있다.

2017년에 통합우승을 차지한 KIA는 2018년에는 5위, 그리고 지난해 7위로 추락했다. 핵심전력들의 노쇠화, 부상, 은퇴 등이 겹치면서 최근 몇 년 간 줄곧 '전력 마이너스'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희망이 무너진 팀은 아니었다. 건재한 핵심자원 양현종이 든든하게 팀의 중심을 잡아줬고,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얼굴들이 대거 등장했다. 잠재력 있는 어린 선수는 물론,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중고 신인들까지 핵심 기둥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야수에서는 박찬호, 이창진, 유민상 등이 2019년의 뜨거운 불꽃을 태웠다. 투수진에서는 전상현, 박준표, 문경찬 등이 필승조로 성장해 새 시즌을 기대케 했다. 1년 전과 비교해봐도 팀은 확실히 젊어져 있다.

2020년을 맞이하는 KIA의 최고 시나리오는 앞서 언급한 2019년의 '희망'이 '확신'으로 변하는 것이다. 구성원의 반짝 활약만큼 리빌딩 팀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없다. 높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인 자원들이 올 한해에도 지난해와 같은 활약을 펼친다면, KIA의 리빌딩 완성은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이뤄질 수 있다. 이는 KIA가 꿈꾸는 2020년 최고의 시나리오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